

제 194 호

연중 제 19 주일

1976. 8. 8.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3·1 사건 공판 방청기(12)

—문정현 신부님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구형—

박 종 상 신 부

시비가 속출했다. 어느 때처럼 20여분 늦게 시작했던 재판이 재판장의 전회 명판 기록의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발표되었다.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불충분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위해 노력한다고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이 민족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동족의 재판장이 재판하므로 착각치 말고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하며, 10분 휴정을 선포했다. 우여곡절 끝에 속개된 시각이 11시 15분, 열리자마자 변호인 측의 어린아이 취급을 하지 말라는 일촉과 동시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시켜 나가지 말 것을 요구하니 더욱 뒤숭숭 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서면에 의하여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정식으로 해줄 것과, 또한 정식 제출 이전에는 급속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논고를 시작하도록 명했다. 변호인들의 전원 퇴정, 방청객중의 반수 이상이 방청 거부로 나타난 퇴정등의 소란 중에 검찰관의 논고가 시작되었다.

밝혀줄 점은 피고인 18명 개개인에 대한 논고가 아니라 동일사건으로 취급하여 하나로 뭉뚱그린 점이다.

① 검찰관들의 몇가지 소감으로 18명 피고인 전원은 소위 급세의 최고 지성인들, 예를 들면 진직 대통령, 대통령 후보, 교수, 성직자 등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경청했으나 크게 실망했다는 것이다. 법정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모독적 발언과 재판장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비롯하여 소위 신학자들이 정치, 외교, 경제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는데 이는 대담하고 상상키 어려운 시도로서 시종일관 가치 기준이 정확치 못한 판단일 것이라 규정한다. 또한 정성어린 대국적 충고이지 절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전원이 주장하나 심지어 대통령을 모독하는 불손한 발언까지 나오니 이제 소위 성직자들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문이나 잡지등에서 발매한 단편적 사실을 그 증거라 제시하나 이는 될 수 없는 말로, 선의의 충고라는 데에 의심을 갖는다고 논고했다.

② 자유 민주주의를 내세워 유신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나, "민주주의가 지상의 목표이냐?"고 반문한다. 또한 민주주의가 정치의 목적인 양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정

치의 한가지 수단이요 형태라고 생각하며,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국민을 잘 살게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유 민주주의는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는 가장 이상적 정치형태이긴 하나, 그 사회와 민족의 역사적 배경 내지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못 박는다. 그 증거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실패한 예를 든다.

유신 헌법은 우리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현 정세에의 대처라는 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밝혔다.

③ 대통령 긴급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나, 긴급조치는 근대 국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안에서 비상 사태를 대비키 위하여 형태는 다양하나 선진국에는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면, 1975년은 소위 전 조선, 적화 통일이라는 결정적 시기로 삼은 복귀가 인지사태 등으로 공산당의 기반 터전에 확신을 갖고 날뛰는 때이므로 비상 시기라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순응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자들이 정부시책에 반발하고 비판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야 소위 지성인이고 현대인인가? 대안 없는 임부 물지각한 자들이 일반 대중 심리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국가와 공공 복지의 수호를 위해 취해
(3면으로 계속)

숲정이 산책



서운 살인이다!
태아를 죽이는 일은 무

3.1 사건 공판 방청기(11)

김 영 신 신부

오늘은 유심히 경계가 삼엄하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이 공포 분위기다.

—법정 질서를 위해 인원제한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이 방청권을 제한, 발부했다는 이유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왜 이 공판이 있을 때마다 경계를 2중 3중으로 해야하고 주민등록 대조를 철저히 하며 성명 및 주소를 적어야만 하는가? 압박자와 피압박자, 권력자와 국민, 칼 든 자와 칼 없는자간의 싸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 아 물론 좋다.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협력을 구하는 것도 말이다. 그러나 감시감독을 받는 약자의 서러움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이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해야할까? 우라 조국 국가를 맡고 있는 현 정권의 태도라면 이 서러움을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를 하오리까? 나 혼자만 그렇게 느낀것도 아니다. 방청하러 가면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모양이다. 똑 같이 느끼면서도 「올려 겨자 먹기」식으로 당하고 만다. 왜 그럴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국민이 우매해서 그럴까? 혹은 재판정에서 방청을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일까? 방청을 하고져 재판정에 들어와서 빈좌석에 앉은 외국인을 보고, 기자석이라고 「완장」이 없으니 안된다면서 서로 언사를 늘어하며 제지시키는 권력자들 때문일까? 이렇게 삼엄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해야만 공정하고 신성 불가침적인 재판이 되기 때문일까?

인간 상식이하의 행위를 요구하는 재판은 공정성을 잃는다는 점을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그 재판의 가치는 유한한 것이라 하겠다. 더우기 외부 압력으로 그와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재판도 제 시간에 시작한 적이 없다. 출근을 늦게 해서도 아닐 것이다. 재판 시간을 고치한 재판장으로써 한 번도 미안한 감을 갖지 않은 채 재판을 시작한다. 오늘은 날씨 탓인지 인상을 더 찌프린다. 박대통령 및 김지하 시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는 내용이 재판기록에 없다는 것을 다 읽었다.

재판장은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모두 기각해버리고 취소하므로 검찰측의 증인 4명만 증인석에 출두했다. 위증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라며 선서를 시킨다.

증인들은 전주경찰서 형사 김의주만 제외하고는 3명이 윤반응목사의 설교 및 기도내용에 관한 검찰 사실조사 여부를 간단히 대답하는 약식 증언이라 하겠는데, 그 소신들을 표시한다.

—「정권 쟁취와 비방」은 아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사실이며 오히려 「신앙생활」을 사찰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강진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부비방하는 설교를 듣고 「놀랐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은 「문정현신부」의 긴급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증언을 위해 「전주사건」 담당관이라는 형사는 「유인물」 압수조서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기억

이 안난다. 아직도 사건 수사중」이라며 증언했다. —증인 신문도 간단히 속성으로 끝났다.

변호인은 증인신청을 포기당하고 증거물 신청만 했는데 그것도 일일이 검찰은 신경질적으로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만 한다. 증거물 신청을 아는대로 나열해 보면 문공부, 법무부, 재무부 및 문교부장관들에 대한 조희신청인데 72년~76년까지 동아일보 언론사태 조사서, 해직된 교수 수, 구속된 학생 수, 은행대부 상환중 불실기업수, 차관상환중 부채액을 조희신청했으며 증인 기각된 김지하를 재신청했다. 이유는 김지하가 1주일동안 잠 못자고 조사받은 사실 여부와 양심선언에 기재한 김대중 남치사건 경위에 대한 작품의뢰 여부 신문등 성격책도 못주고 대접도 나쁘다는 사실 여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란단.

또 작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 테모사건으로 학생이 구속 재판을 받았는데 그 공판재료를 신청한다. 「5원짜리」월급문제로 동아일보 「74년 7월 14일자 기사내용의 신문을 증거물로 신청했으며 경제문제에 대한 7개국에서 연구한 한국경제, 마산 부평공업단지실태 분석한 경제연합회 서적, 저임금에 관한 심 포지움 내용 수록한 신동아잡지, 가톨릭 농민회에서 조사한 쌀 생산비 및 농지실태조사 보고서, 평화적인 정권을 촉구하는 서적 4권(김대중 저)그 외 교황회칙 「지상의 평화」 「인권 옹호에 관한 선언」 공의회 문헌 「사목현장」 「교회일치교명」 교황칙서 및 문헌을 제출 했으며, 「세계인권선언문」 「교회일치주간 행사 지침서」 「가톨릭 시보 몇부」등을 제출했다. —

재판장은 이 증인 및 증거물 신청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0분 휴정선언을 한다. 그러나 30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 방청객은 「이구동성」으로 「명령」 「지시」가 늦는 모양이란단. 과연 변호인이 말했던 「각본」대로 일까? 이런 재판이 옳바르다고 할까? 재판장은 「검사」라는 직업선수와 피고인을 대리한 직업선수인 「변호사」와 시합하는 권투경기라 하면 심판관으로 마치 몇일전 편파적으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오판을 해놓고 반대편 승이라고 번의하는 「쇼」맨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다음 공판은 8월 3일에 검찰의 논고(검사구형)가 있다며 휴정선언을 일방적으로 했다. 재판이 완행에서 초록 급으로 변했다. 교통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기도드리십시다.

〈교구 관리국장 신부〉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로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6094

-〈1면에서 계속〉

진 것이 긴급조치이다. 그러므로 자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발동됐다는 것이다. 이에 사실을 왜곡하여 비방 내지는 선동에 피고인 전원은 연루되었으니 이를 통탄해 마지 아니하며 죄의 내용을 열거한다.

첫째, 헌법 비방 및 선동이다.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정치된 의회 정치의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든지, 의회 제도의 유명 무실이라는 독선적인 주장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긴급조치의 위반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리 배에 보여졌듯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 당했다는 발언이나 철혈을 주장함으로 소위 부유된 민주인사를 석방하자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어찌하여 헌법에 의거한 긴급조치가 폭력에 의한 억누름으로 표현되는 것일까? 악의에서 나온 결과이다.

셋째, 사실의 왜곡이다. (지면관계로 자세히 서술을 못함)

① 정치문제

삼권분립—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안되어 있고, 현정부를 독재정권 운운함

② 기본권 보장 문제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없다는 주장

③ 경제문제

일본 경제에의 식민지화, 농촌경제의 파쇄, 차관 경제의 위기, 노동자와 기업주의 괴리 현상 등에서 잦더미화라든지 착취 및 기타의 언동으로 사실 왜곡.

④ 외교문제

제3세계에 눈돌리지 않고, 서방세계에서도 차츰 의면당한다고 주장.

⑤ 김지하 시인 문제

수사기관에서 공산주의자로 조작하고 정부 비판자이기에 석방치 않는다고 주장.

⑥ 민방위법, 방위세, 사회안정법 문제

민방위법은 국민에게 전쟁의 위기의식을 조장시키고, 방위세는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안정법은 반 정부 인사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실을 왜곡.

⑦ 민주 구국 선언 문제

사건의 핵심이 되는 민주 구국 선언문을 국내에 발표하여 통일을 촉구하고 정부에 대하여 선의의 충고를 하려 했다고 피고인들은 진술하나, 이는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의 독재성과 현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부실한 점을 들춰내어 국민의 절기를 촉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3월 1일에 발표하여 가능한 모든 국민 또는 뜻 있는 국민의 거국적 봉기를 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하여 국제적인 여론을 일으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현 체제의 타도 즉 현 정부의 퇴진을 우선적으로 바랬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복귀를 이롭게 했으나 그 증거를 평양 방송도 60여회에 걸쳐 이를 선전 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끝을 맺고 곧 이어 구형을 했다.

요심이 (158)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교형 여러분의 집☆

한국(流)온수온돌
부활상회

전주시 전동 3가 26~17번지
<배곡교 사거리> 전화 ③ 2143
전주 연락서 주원배(실베들)
◎언제나 찾아 주세요.

★교우 여러분께 특별할인 우대★

후·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289
김 금 순 (메레사)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온돌 공사
(본사지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암(모이세)
금암동 ③5614 군산 3032
다가동 ④4342 부안 736
전 동 ②2143 정읍 2157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③ 6691(교환85번)
自宅 ② 5418

☆(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수석(水石) 치과 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름)

전주시 증양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공지사항

1. 대학생 지역대회 8월 11일<수>~14일<토>까지 장소: 변산관 위도 참가비: 2,500원
2. 전주지구 울뜨레아 (14일<토> 오후 8시반, 덕진성당)
꾸르실리스타 형제 자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3.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움 회의(매월 셋째주일 오후 1시반, 전동성당)
서리아 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한 돌 섭
제2보좌 신부 김 번 상
사 도 회장 이 창 용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사도 조 성 호

- ☆ 교무금을 완납하여 분당 발전 이룩하자! ☆
1. 「숲정어」 새 성당 기공식: 9일(월) 오전 10시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 영세식: 14일(토) 저녁 6시
 4. 성모 승천 대축일 전야기도 모임: 14일(토) 저녁 8시
※ 준비물-기도서, 묵주, 미사포, 초.
 5. 성모 승천 대축일 특별 고백성사: 9일~14일
매일 오후 6시~7시까지.
 6. 선교분과위원회: 14일(토) 저녁 8시

1. ※교무금을 완납하여 천주님께 약속을 이행합니다!
2.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성당 수리 및 복자 기념관 건립: 내일부터 신입하지 않으신 교우 가정을 방문하겠으니 적극 협조 하시어 성의껏 신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정성어린 주일 봉헌금을 바칩시다-1주일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물을 축리하며 앞으로의 생활에 은총을 빌면서 주님안에서 생활 합니다.
5. 주일학교: 내일(9일)-14일까지(오전 9시-11시)
◎ 국민학교 학생들은 빠짐없이 내 보냅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조 해 형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신우 협동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성화회 총회: 8월15일(일) 공식 미사후
3. 「영세자」 ① 면담-10일(화) 오후 8시.
◎ 영세식-14일(토) 오후 9시 ※ 이날 유아 어린이들에게도 영세를 줍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대부분을 모시고 14일 오전 8시 30분까지 나오십시오.
4. 첫 영세자 ① 교리시간-매일 오전 9시부터 시작
◎ 이번 교리자는 부모님과 함께 13일(금) 10시 미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5. 성모 뫼소 승천 대축일 앞두고 11일-12일까지 특별 고백 성사! ◎ 시간: 오후 3시-5시, 8시-9시.

1. 초·중·고등학생 하기 교리 실시(9일-14일)
① 국민학생-오전 9시부터,
② 중·고등학생-오후 4시부터
◎ 교형 자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 반 회합: 10일(화)-5반(구6반), 11일(수)-6반(구9, 17반), 12일(목)-7반(구 10반), 13일(금)-8반(구 11반).
3. 청·장년, 초·중·고등학생 야우회(군산옥봉) 8월16일-17일(1박2일), 회비-500원.
4. 신우 협동 조합 사무실 이전 개업: 15일(주일) 공식 미사후 ※ 전 조합원의 참석 바랍니다.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함철
보좌 신부 문 규현
사도 회장 양 윤 모

1. 신우 협동 조합 월례회, 성당 건립 이사회: 공식 미사후
2. 하계 어린이 특별 교리-첫 영성체 준비<첫 영성체 15일 저녁미사에> ①일시: 9일-14일(오전9시-12시)
※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랍니다.
3. 어머니 수련회 ① 일시: 16일-18일,
◎ 장소: 선유도, ② 대상: 부녀회원.
4. 교무금을 속히 완납하여 분당 운영에 슬선 합니다.
5. 성당 건립 성금 수입: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김동선(15만원), 소완영(7만원), 김익수(2만원), 전영숙(2만원), 박종복(5천원)
계 265,000원 누계 1,265,000원

1. 성모 뫼소 승천 예비자 교리: 매일 밤 8시15분
2. 주일학교 방학 교리(월)-(토)까지 매일 오전9시
3. 호자동 아파트(생무실) 앞에서 기념미사 오늘 오후 4시.
4. 성 가정회: 내일(월) 오후 2시.
5. 자모회: 공식 미사후, 선교분과위원회: 저녁 미사후
6. 성모 승천 축일(다음주일) 특별헌금을 호자동 성당 건립 머리를 마련하는데 봉헌 하기로.....
7. 3회 소식: 8월 월례회는 전국대회 관례로 15일에 합니다.
8. 중·고등학생 특별교리: 9일-13일 오후3시부터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인 을 창 재 투 입 정	사도회 입시총회	4,165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동 황 등	성모 뫼소승천 성가연습 예비자 교리	53,060원 9,230원
		성모회 월례회	30,100원			제 4 지구	중 안 노 송 동 덕 진 자 서 학 동 전 등
제 2 지구	대 문 울 동 월 명 동 등 합	영세 예비자 교리	8,035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임	첫 영성체 교리 청년회 야의 단합대회 예비자 교리 및 견진자 교리	12,405원 5,280원 12,570원
		신우협동 조합 월례회	59,230원			성모 뫼소 승천행사 안내	6,66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산 산 레	학성회 연수회	3,500원				
		신우회 각 풍소 특별교리 시작	22,440원				
		바다의별 꾸리아 월례회	30,340원				
		꾸리아회, 풍소 방문	15,730원				
		교적 정리를 위한 방문실시	21,400원				
		예비자 세례준비 교리	3,070원				
		일반 신자들을 위한 신앙강좌	18,065원				
		중·고등학생 교리 실시	7,870원				
		신우협동조합 월례회	13,860원				